

재한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불안의 관계: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State-Trait Anxiety by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College Life Adjustment

주원*, 박정윤**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가족전공*,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Yuan Zhu(duduzz@live.cn)*, Jeong Yun Park(pjy4838@cau.ac.kr)**

요약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서울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253명으로 모집하였으며, SPSS 18.0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신뢰감, 그리고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이 불안과 부정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 소외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애착 중의 하위변인 신뢰감과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학업적응과 개인-정서적응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애착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한 중국 유학생의 불안정서를 감소하기 위하여 안정적 부모애착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중국 유학생 | 부모애착 | 대학생활적응 | 불안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on anxiety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as well as the role of the mediating in the adjustment of college lif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inese students in Seoul in 4-year colleges. And through SPSS 18.0 this study has done.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age, education background, the communic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sense of trust, academic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personal emotional adjustment, college environment adjustment and anxiety were negatively correlated. And alienation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nxiety. Second, the factor analysis of parents attachment in this study, the trust and the adjustment of college life have an impact on academic adjustment and personal emotional adjustment, and the academic adjustment and the personal emotional adjustment also has a certain impact on anxiety. Thir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 life adjustmen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of cognized parental attachment and anxiety. At the same time, it is also proved th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nxiety, the adjustment of college life has been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 keyword : | Chinese Students | Parental Attachment | College Life Adjustment | Anxiety |

I. 서론

1992년부터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우호관계가 사회·경제·문화 등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은 교육 분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외국 유학생이 20,347명에서 2015년 96,357명으로 10년 간 약 4.7배 증가했으며, 그 중 중국 유학생이 63%(60,66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1]. 따라서 중국학생의 한국 유학생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흥미로운 일이다.

낯설고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모국을 떠나 새로운 생활양식을 시작해야 하는 유학생은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과 압박감 및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2]. 대학생이 느끼는 불안은 다양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3]. 최근 대학생의 자살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환은 우울로 알려져 있으며, 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불안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또한 불안은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5],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불안 정서를 계속 느끼기 때문에 타 학교로 옮겨 다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6]. 실제 불안은 대학생의 적응, 학업수행, 사이버 중독,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대학생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는 반면, 유학생의 불안정서에 대한 연구가 소수였다. 외국 유학생이 국내 대학생과 함께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 양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불안을 감소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개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 이론적 배경

불안은 유기체의 활성화 또는 각성에 있어서 신체적,

정서적 과민상태를 지칭한다[8]. 불안이란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가능성으로 존재하여 자기의 안전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감정이다[9]. 또한 불안은 명확한 원인 없이 미래의 위험이나 불행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함으로써 생기는 두려움, 근심, 긴장 등으로 정의되는 감정반응이다[10]. Spielberg 외(1995)는 불안을 일시적 특징을 가진 상태불안(state-anxiety)과 안정적 특징을 가진 특성불안(trait-anxiety)으로 구분했다. 상태불안은 특수한 상황에서 긴장감, 두려움 등의 느낌을 동반하는 일시적 불안을 말하며 위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특성불안은 불안경향에 있어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개인차를 지닌 성격특성으로써, 광범위한 자극 상황을 위협한 것으로 지각하는 성향이 개인마다 다르며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처리하는 개인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11].

대학생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는 곳으로 가정, 학교, 친구로 크게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으로 나눌 수 있지만 유학생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가족관련 변인과 학교생활관련 변인에 대한 고찰은 미비하다. 가족 특히 부모변인은 자녀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13]. 선행연구에서 부모애착이 국내 대학생 자녀의 불안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다[11][14-16]. 반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부모애착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학생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유학생의 부모애착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Armsden & Greenberg(1987)는 부모애착의 안정성이 높은 자녀가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개념의 혼란이 적었다고 보고하였고, 안정적인 부모애착일수록 불안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순(2005)은 자녀가 부모와 긍정적인 부모애착을 맺지 못할 경우 불안이나 우울 그리고 대인관계가 부적응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모애착이 낮은 집단은 불안,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외면화 문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자

너가 부모에게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의지할 수 없으며, 긍정적인 부모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불안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애착이 학생의 불안정서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재한 중국 유학생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생활적응은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 속에서 겪게 되는 변화와 도전에 따른 학업적응뿐만 아니라 교수, 또래와의 관계, 학교규칙 준수, 학교생활만족 등에 대한 반응과 대처 과정이다. 친구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원만하지 못한 경우 불안감을 경험하고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학교생활적응은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도 관련성이 있으며,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와 학생의 학교만족도 간의 부적 상관이 있음으로 밝혀진다[19]. 김미숙(2001)의 연구에서도 학교적응이 불안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학업적응과 대인관계는 부정적인 정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교규칙, 교수와의 관계적응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환경적응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정서가 높게 나타난다[12].

또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자녀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적 능력을 계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이다[21]. 부모애착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족특성 변인임을 확인하였다[22]. 부모애착이 대학생활적응의 하위변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부모애착의 각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혀졌으며, 부모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13].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대부분 선행연구들이 종속변인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재한 중국 유학생의 부모애착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학생에 대한 대학생활적응이 불안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연구가 없고 가족관련 변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연구도 소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에 따른 불안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재한 중국 유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 불안,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유학생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도출하여 검증하였다.

-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애착, 대학생활적응, 불안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모애착, 대학생활적응 및 불안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모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이 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대학생활적응은 부모애착과 불안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1.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 대학원 과정의 중국 유학생을 선정하였다.

1.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보고식 질문지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편의표집 방법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자료를 배포 및 수거하였다.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

답을 제외하고 253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독립변인으로 부모애착, 매개변인 대학생활적응, 종속변인인 불안은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2.1 인구사회학적 변인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중국 유학생의 성별, 연령, 학력, 한국어 수준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2.2 부모애착

부모애착 척도는 Armsden & Greenberg(1987) 개발한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전체 75문항[24] 중에서 부모애착과 관련된 문항 28개만 발췌하여 정성숙(1994)이 번안한 부모애착 척도[25]를 사용하였다. Armsden & Greenberg(1987) 개발한 부모애착 척도는 부모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애착정도를 측정한다. 부모애착 척도는 하위변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3가지가 있으며, '의사소통' 10문항, '신뢰감' 10문항, '소외감' 8문항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변인 중 '의사소통'영역은 부모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고 걱정거리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등과 같이 부모자녀 간의 언어적 의사소통 정도와 질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감'영역은 우리 부모가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나의 판단을 믿어주는 것과 같이 자녀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있어서 안정성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외감'영역은 내가 부모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하며, 부모를 믿고 의지할 수 없음 등과 같이 부모로부터 정서적 유리감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애착 안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6, '신뢰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71, '소외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92였다. 전체 부모애착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6이었다.

2.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는 Baker & Siryk(1984)가 개발하[26]고 주원(2016)이 번안한 대학생활적응 척도[13]를 사용하였다. 이는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에 대해 호감 정도를 측정한다. 대학생활적응 척도의 하위변인은 4가지로 구분되며, '학업적응' 24문항, '사회적응' 15문항, '개인-정서적응' 16문항, '대학환경적응' 12문항 총 6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변인 중 '학업적응'영역은 학업과 관련된 적응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응'영역은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포함하며 '개인-정서적응'영역은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환경적응'영역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관심과 호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학생활적응에서 '학업적응'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44, '사회적응'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68, '개인-정서적응'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5, '대학환경적응'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38이었다.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928로 나타났다.

2.4 불안

Spielberger, Gorsuch & Lushene(1970)가 개발한 상태-특성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양효라이(2009)가 번안한 중국판[27]을 사용한다. Spielberger 외(1970)는 불안을 일련의 정서적 과정으로 이해했으며, 불안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분류하였다. 상태불안은 현재의 기분 상태를 측정하였고, 특성불안은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분의 성향을 측정한다. 본 척도는 2개 하위변인인 ‘상태불안’, ‘특성불안’ 각각 20문항 씩 총 40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상태불안’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3$, ‘특성불안’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6$ 로 나타났다. 전체 불안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3$ 이었다.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20대인 대학생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한국어 수준은 중간 정도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성 별	남	84(33.2)
	여	169(66.8)
연 령	20세 이하	8(3.2)
	20세이상~25세미만	130(51.4)
	25세이상~30세미만	100(39.5)
	30세 이상	15(5.9)
	M(SD) (세)	24.0(3.2)
학 력	대학생	155(61.3)
	석사	86(34.0)
	박사	12(4.7)
한국어수준	상	37(14.6)
	중상	82(32.4)
	중	106(41.9)
	중하 하	16(6.3) 12(4.7)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첫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과 관련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인, 부모애착, 대학생활적응에 따라 유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애착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관련변인들의 전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부모애착, 대학생활적응, 불안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애착 평균은 3.34점($SD=.28$)이었으며, 하위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신뢰감은 3.68점($SD=.54$), 의사소통은 3.66점($SD=.66$), 소외감은 2.52점($SD=.68$)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애착은 5점 중 중간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와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았으며 소외감은 보통 수준이었다.

둘째, 대학생활적응 평균점수는 3.28점($SD=.42$)이었으며, 조사대상자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고 학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문제를 직면할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하위변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대학환경적응 영역의 평균점수는 3.71점($SD=.59$), 사회적응 영역의 응답자 평균은 3.27점($SD=.47$), 개인-정서적응 영역의 평균이 3.22점($SD=.56$)이며, 학업적응 영역은 평균 3.14점($SD=.48$)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에 만족하며, 학교 내에 친구관계가 비교적 원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편이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불안의 평균점수는 2.75점($SD=.58$)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특성불안은 2.80($SD=.53$), 상태불안은 2.69($SD=.65$)이었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고 성격특성으로 형성된 불안이 일시적 불안보다 약간 심함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성

변인	하위변인	점수범위	M(SD)
부모애착	의사소통	1.40~5.00	3.66(.66)
	신뢰감	1.90~4.70	3.68(.54)
	소외감	1.25~4.38	2.52(.68)
	전 체	2.43~3.93	3.34(.28)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	1.96~4.50	3.14(.48)
	사회적응	1.80~4.67	3.27(.47)
	개인-정서적응	1.25~4.88	3.22(.56)
	대학환경적응	2.00~5.00	3.71(.59)
	전 체	2.31~4.55	3.28(.42)
불안	상태불안	1.10~5.00	2.69(.65)
	특성불안	1.35~4.60	2.80(.53)
	전 체	1.30~4.80	2.75(.58)

2. 인구사회학적 변인, 부모애착, 대학생활적응과 불안 간의 상관관계

재한 중국 유학생의 불안과 관련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불안과 관련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모와 소외감($r=.419, p<.01$)이 정적 상관관계

가 있었으며, 연령($r=-.157, p<.05$), 학력($r=-.199, p<.01$), 의사소통($r=-.360, p<.01$), 신뢰감($r=-.443, p<.01$), 학업적응($r=-.584, p<.01$), 사회적응($r=-.491, p<.01$), 개인-정서적응($r=-.717, p<.01$), 대학환경적응($r=-.438,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가 부모에게서 느끼는 소외감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않을수록, 신뢰감이 낮을수록,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및 대학환경적응이 낮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지각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이 불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각한 부모애착, 대학생활적응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Model I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투입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4.7%를 차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F=2.764, p<.05$).

Model II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에 더하여 부모애착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6.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0.424, p<.001$). 불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은 소외감($\beta=.309, p<.01$)이었으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뢰감($\beta=-.299, p<.01$)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표 3.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연령	1										
2. 학력	.578**	1									
3. 한국어수준	.291**	.294**	1								
4. 의사소통	.106	.115	.090	1							
5. 신뢰감	.088	.158*	.099	.765**	1						
6. 소외감	.038	-.109	-.097	-.754**	-.718**	1					
7. 학업적응	.298**	.275**	.230**	.231**	.321**	-.316**	1				
8. 사회적응	.329**	.206**	.219**	.261**	.291**	-.224**	.620**	1			
9. 개인정서적응	.114	.053	.121	.262**	.295**	-.322**	.490**	.446**	1		
10. 대학환경적응	.228**	.151*	.133	.204**	.279**	-.237**	.553**	.665**	.458**	1	
11. 불안	-.157*	-.199**	-.119	-.360**	-.443**	.419**	-.584**	-.491**	-.717**	-.438**	1

* $p<.05$, ** $p<.01$

부모에게 신뢰감이 낮을수록 소외감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odel III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과 매개 변인인 대학생활적응 변인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Model III의 전체 설명력은 Model II보다 32.2% 증가하여 58.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32.360, p<.001$). 조사대상자의 개인-정서적응($\beta=-.567, p<.001$)과 학업적응($\beta=-.232, p<.01$)을 못할수록, 중국 유학생의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V에서 관련변인을 모든 투입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전체 설명력은 60.7%였으며, Model II보다 34.7%, Model III보다 2.5%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3.984, p<.001$). 전체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은 개인-정서적응($\beta=-.524, p<.001$)이었으며, 다음으로 학업적응($\beta=-.195, p<.01$), 부모와 신뢰감($\beta=-.185, p<.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가 개인-정서적응과 학업적응을 못할수록, 부모에게 신뢰감이 낮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4. 조사대상자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β	β	β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031	-.016	-.007	.003
	연령	-.066	-.140	.108	.063
	학력	-.146	-.066	-.072	-.058
학업적응	한국어수준	-.052	-.035	-.012	-.014
	의사소통		.131		.131
부모애착	신뢰감		-.299**		-.185
	소외감		.309**		.132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			-.232**	-.195**
	사회적응			-.080	-.071
	개인-정서적응			-.567***	-.524***
	대학환경적응			-.006	.016
Constant(상수)		4.263	4.180	5.959	5.765
R ²		.047	.260	.582	.607
adj R ²		.030	.235	.564	.581
F값		2.764*	10.424***	32.360***	23.984***

* $p<.05$, ** $p<.01$, *** $p<.001$

1. 성별: 0=남, 1=여

4. 부모애착과 불안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애착이 불안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 방법인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부모애착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학생활적응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부모애착 변인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이 감지되었으며,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즉, Sobel test를 통해서 부모애착과 불안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Z=-3.451, p<.001$)의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표 5. 부모애착과 불안 간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조사대상자	
	Sobel Test	p
부모애착 → 대학생활적응 → 불안	-3.451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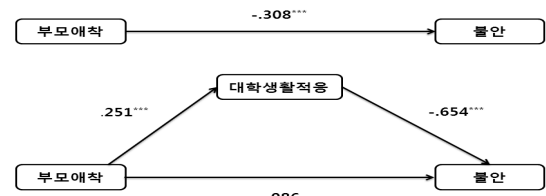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애착과 불안 간 대학생활적응의매개효과 검증

V. 논의 및 제언

유학생의 대학 시기는 모국에 있는 부모를 떠나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역할을 수행하기 전 단계라서 정신과 정서의 건강이 중요한 시기이다[4]. 따라서 본 연구는 제한 중국 유학생의 부정적인 정서 불안이 있어서 가족변인 중 하나인 부모애착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들의 불안이 가족관계 개선이나 강화하고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는 것을 통하여 불안을 감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의 의의 및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대상자인 유학생의 불안은 보통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특성불안, 상태불안이 모두 중간 이하로 밝혀져 김점희(201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분의 성향은 대체적으로 사소한 걱정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상태는 양호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는 것이다. 중국 유학생의 불안의 하위영역별로 볼 때 상태불안보다 특성불안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성불안은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되고 장기화된 불안이라서 유학생을 하면서 새로운 학교생활과 한국 사회로의 적응에 대한 문제 등으로 국내 대학생들과는 다른 양상의 불안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특성불안을 단시간 내에서 감소하기는 어려움으로 상대적으로 불안발생이 단기적인 상태불안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유학생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대학생활에 적응하면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학생의 불안은 성인으로 성장한 후 불안장애, 우울증, 알코올, 불법 약물의존, 자살행위 등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11] 개인 삶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점으로 자신의 정서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또래집단의 협력, 학교 내 상담센터에서의 지속적인 불안수준검사를 지원해주고 상담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외롭고, 소외감을 갖고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국을 생활에 대한 향수로 학교에서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이나 같은 본국또래와 친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정서적인 측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부모자녀 간의 신뢰감이 유학생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호 외(2012), 김효정 외(2014)의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불안의 관계가 부적상관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국내, 외 학생에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이다. 자녀의 유학생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부모와의 신뢰감이 높은 경우 평안히 호소하고 상호지지하며,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31]. 또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으로

신뢰감이 형성된 자녀들은 성인기에 이르러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높은 자신감, 낮은 불안을 보였던 반면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자녀가 정서적 문제를 갖게 될 수 있다[32].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된 대학생의 경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된 대학생보다 불안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강경호(2012)의 연구에서 부모와 긍정적인 부모애착 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자녀의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의 부적응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신뢰감은 유학생 자녀의 불안 정서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중국 유학생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학생생활상담실 등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관계 개선과 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및 부모-자녀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활적응 변인이 조사대상자의 불안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최은희와 조택희(2016)의 연구에서 학생은 학교친구, 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성취를 경험한다면, 자신감을 생기며, 활발해 질 수 있는 동시에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생각을 감소될 수 있는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대학생의 학교생활은 자신의 내적 역량과 대인관계를 확장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개인의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은 유학생이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학생들이 학교 내 학업, 정서, 대인관계 면에서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훈련, 자기주장훈련, 감정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심시를 통해 그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대학생활적응 변인은 부모애착과 불안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은 안정된 부모애착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김종운·최미숙(2013)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부모

애착관계와 대학생활적응을 연계하여 해석해 본다면,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맺게 되는 유학생 자녀가 독립적이고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제가 될 수 있으며,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애착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자체가 대학생의 심리적 문제나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됨을 밝힘으로써 이들 간의 쌍방향적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부모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영향력을 같이 고려해 볼 때, 부모자녀 간의 신뢰감을 증가시키고 학업을 잘 적응하도록 촉진함으로써 대학생 자녀가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애착을 살펴보았으므로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재한 중국 유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부모애착을 부모 입장에서 지각하는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외국에서 사용한 것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그러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중국에 적용 가능한 부모애착, 대학생활적응 관련 척도를 개발 또는 조정하여 적절한 척도를 활용한 연구가 추후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한 중국 유학생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이 다양할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변인만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따라서 재한 중국 유학생의 불안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변인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가 제시됐다. 다른 나라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면 또한, 국내 학생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같은 양상을 나올 수 있는지 추후연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학생의 정서관련된 프로그램과 대학생활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다. 추후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의 효과성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재한 중국 유학생의 불안이 가족관계 개선이나 강화하고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는 것을 통해서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6 유학생관련 현황, 2016.
- [2] 주운, 이용남, “중국유학생의 한국어 학습동기, 의사소통 불안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교육연구, 제33집, pp.23-37, 2010.
- [3] 백세진, *중국인 유학생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문화적응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4] 최승혜, 이해영, “대학생의 불안, 취업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619-627, 2014.
- [5] 양승희, 윤지원, “대학생의 우울, 불안, 금주 자기효능감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2호, pp.304-313, 2015.
- [6] 오도영, *중국인 유학생 그들은 누구인가? 현황과 실태*, 충청일보, 2008.
- [7] 심은정,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불안과 우울의 유병률과 관련요인,”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12호, pp.663-698, 2016.
- [8] 이봉섭, *비블리오프라마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9] 장조현,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아동의 불안 및 공격성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0] 강경호, 홍혜영, “부모애착과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청소년학회, 제19권, 제7호, pp.51-77, 2012.
- [11] 조진주, *청소년의 애착과 완벽주의성향이 특성*

-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2] 최은희, 조택희,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및 자살 생각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pp.152-162, 2016.
- [13] 주원, *제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과 부모의 부부관계 질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14] 윤혜경, *부모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15] 한승희,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6] 王玉廷, *父母婚姻質量、親子依戀与幼兒焦慮的關係研究*,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 [17] 김현순,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8] 우선유,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19] 이해경, 김수연, 김혜원, “남녀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우울, 불안이 학교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4호, pp.129-156, 2013.
- [20] 김미숙, *초등학생의 발표불안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1] 심태은, 이송이, “부모애착 및 스마트폰 사용이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9권, 제3호, pp.471-487, 2014.
- [22] 박범혁, 정영숙,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3호, pp.45-57, 2007.
- [23] 김종운, 김지현,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48-259, 2013.
- [24] G. C. Armsden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427-454, 1987.
- [25] 정정숙,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26] R. W. Baker and B. Siryk, “Measuring academic motivation of matriculati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Vol.25, No.5, pp.459-464, 1984.
- [27] 楊曉來, *心境与焦慮症狀問卷簡式中文版在大學生中的信度、效度研究*, 湖南中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 [28]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1173, 1986.
- [29] 김점희, *대학생들의 부모애착과 특성불안이 진로결정상태에 미치는 영향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30] 김효정, 이승연, 노경란,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과의 관계-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9권, 제4호, pp.339-359, 2014.
- [31] 조현재, 김정미, “대학생의 애착안정성과 대인불안의 관계: 자기표상 및 타인표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호, pp.201-222, 2011.
- [32] 주원, 박정윤, 장영은, “제한 중국 유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향적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82-95,

2017.

- [33] 강경호, *부모애착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34] 김종운, 최미숙,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 및 대학생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2호, pp.45-68, 2013.

저 자 소 개

주 원(Yuan Zhu)

정회원



- 2013년 8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2016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가족전공 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가족전공 박사과정
- 2013년 9월 ~ 2015년 8월 : 중앙대학교 국제교류팀 조교
- 2015년 9월 ~ 2017년 2월 : 다에다문화학교 강사
<관심분야> : 가족복지,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박 정 윤(Jeong Yun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이학박사
 - 2004년 ~ 현재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